

예수 성탄 대축일 밤미사 전례

※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강당에 구유와 성탄 트리를 장식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쪽 구석에 준비한 선물들만 올려놓도록 합니다. 구유 경배는 없습니다.

☞ 20시 전에 제대초를 켵니다.(성당 내 전등은 켜 상태로 시작합니다)

신자들은 자리에 앉아 고요히 묵상하고 있다가 해설자의 해설이 끝나면 성가를 부르지 않고 성가 반주만 합니다.

☞ 주례사제는 제의를 입고 입당 준비를 합니다. 입당은 복사 없이 입당합니다.

○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던 예수님 성탄 대축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은 무(無)에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나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모든 이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예수님 성탄의 신비를 깨달아, 우리 곁에서 아파하고, 소외당하고, 잊혀져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뵈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 기쁨을 우리의 모든 이웃과 함께 나눕시다.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보다 뜻깊은 성탄이 되도록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성가는 함께 부르지 않고 반주만 있겠습니다. 입당성가 번호는 102번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사제의 입당과 더불어 미사가 시작됩니다.

▶ 개회식

☞ 주례사제는 성호를 긋고, 개회 인사를 한 뒤,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합니다.

†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또한 우리 모두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탄생하신 이 거룩한 밤에,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 가정에 아기 예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보시다시피 오늘은 여기에 구유를 꾸미지 않았습니디. 구유는 만남성당에 있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는 아기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알려 주신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참으로 위로와 평화, 희망과 구원의 빛으로 가득 찬 하느님의 말씀과 이 구원의 빛이 우리 사회와 온 세상 곳곳을 밝혀 주시기를 우리 모두 간구합시다.

▶ 자비송(Kyrie eleison)

† 주님, 주님께로 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이 세상, 감각적 향락과 이웃 사랑을 잊어버리게 하는 이기심을 주님께서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도, 저희는 주님께 드릴 예물이 없습니다. 주님께 보여 드릴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도, 주님을 맞아드릴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릴 마음이 부족합니다. 오직 메마르고, 차갑고, 상처투성인 제 영혼뿐

입니다.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의 냉대 속에 탄생하십니다. 저희들의 무관심 속에 탄생하십니다. 가난과 마음과 그른 것을 감싸주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전능하신 하느님,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 대영광송(Gloria)

▶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참된 빛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 거룩한 밤을 밝혀 주셨으니, 저희가 세상에서 이 빛의 신비를 깨닫고, 천국에서 그 빛의 기쁨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제1독서<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9,1-6

1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2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 수확할 때 기뻐하듯,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

3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멘 장대와, 부역 감독관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치신 그날처럼 부수십니다.

4 땅을 흔들며 저벽거리는 군화도, 피 속에 뒹군 군복도, 모조리 화염에 싸여 불꽃의 먹이가 됩니다.

5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이다.

6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놓인 그 왕권은 강대하고,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이다. 그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정과 정의로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켜 가리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화답송 : 시편 96(95),1-2 7.2ㄴ-3.11-12.13(◎ 루카 2,11 참조)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 숲 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

○ 그분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 ◎

▶ 제2독서<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티토서 말씀입니다. 2,11-14

사랑하는 그대여, 11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12 이 은총이 우리를 교육하여, 불경함과 속된 욕망을 버리고 현세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 줍니다.

13 복된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위대하신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해 줍니다. 14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시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방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어, 선행에 열성을 기울이는 당신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복음 환호송 : 루카 2,10-11 참조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알렐루야.

▶ 복음<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14

1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2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3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4 요셉도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5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6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 7 첫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8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9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10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11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12 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13 그때에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후 잠시 묵상한다.>

<신경.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 부분에서 모두 깊은 절을 한다.>

▶ **보편 지향 기도**

✦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이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내리는 이 밤에, 벽찬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뻐하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자신을 비우고 낮추시어 사람이 되신 주님의 강생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주님, 사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일하는 공직자들을 보살펴 주시어, 국민을 섬기는 마음과 자세로 성실히 일하며,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

3. 노숙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아기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밤에 한뼉잠을 자는 노숙인들을 보살펴 주시고, 기쁨에 들떠 있는 저희가 성탄의 참뜻을 되새기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

4. 본당 공동체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본당의 모든 가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그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며, 신중하고 의롭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

✦ 만군의 주님, 겸손하게 살아가려는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모아 청하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 **봉헌**

○ 봉헌 성가는 101번입니다. 성가를 부르지는 않고 반주만 하겠습니다.

☞ 봉헌이 끝나면 주례사제는 예물 기도를 바칩니다.

▶ **예물 준비기도**

†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모두 일어섭니다>

◎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 **예물 기도**

† 주님, 오늘 인간의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결합되었으니, 이 축제의 제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시어, 저희가 이 거룩한 교환의 신비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

<감사송>

▶ **성탄 감사송 1 <빛이신 그리스도>**

†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로 저희 마음의 눈을 새롭게 밝혀 주시어, 하느님을 눈으로 뵈고 알아서, 보이

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 나이다.

▶ 거룩하시도다

▶ 성령 청원 : 축성기원(에피클레시스)

▶ 성찬제정과 축성문

† 신앙의 신비여!

◎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 기념과 봉헌, 성령 청원 : 일치기원, 전구, 마침 영광송

▶ 주님의 기도

▶ 평화예식

▶ 빵 나눔

▶ 하느님의 어린양(Agnus Dei)

▶ 영성체(신부님의 영성체가 끝나면 바로 해설을 시작합니다)

○ 이제 예수님을 우리 몸과 마음 안에 모시는 시간입니다. 흠송하는 마음으로 성체를 영하 시면서 성체성가는 107번이 반주로 연주됩니다. 영성체 때 신부님을 따라 말씀 카드가 들어 있는 쟁반을 들고 한 분이 다닐 것입니다. 영성체 후에는 말씀 카드 하나 씩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 영성체 후 묵상

○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이 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과 평화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 영성체 후 기도

† 기도합니다.

주 하느님, 저희가 우리 구세주의 성탄을 기쁘게 지내오니, 성자의 가르침대로 현세를 거룩히 살아, 마침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 아멘.

▶ 공지사항

▶ 파견

○ 오늘 예수 성탄 대축일 밤 미사에서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성가는 99번이 반주로 연주됩니다.

○ 이것으로 예수 성탄 대축일 밤 미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사 후에는 각자의 선물을 찾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늦은 밤 안녕히 가십시오.